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뽕끼”는 나의 Soul 대중에게 통하다

백지영 싱글 ‘여전히 뜨겁게’ 발표



백지영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 음악의 특성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트로트풍의 대중음악을 의미한다.

최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백지영(38)은 다이나믹 중이라고 했다. 환절간 키에 변함없이 늘씬했지만 새 음반 활동을 앞두고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다.

로해 6월 9일 연하의 배우 정석원과 결혼한 그는 지난 7일 싱글 ‘뽕끼’를 발표한 데 이어 26일 또 다른 싱글 ‘여전히 뜨겁게’를 잇달아 발표한다.

그는 “뽕끼”는 한국적인 솔(Soul)이라며 “보통 알앤비(R & B), 솔 등 여러 장르로 구분하는데 ‘뽕끼’는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솔이다. 가수가 메시지 전달자라면 ‘뽕끼’ 있는 발라드는 대중의 감성에 다가가기 좋다. 나에게 이러한 감성이 생긴 게 무척 좋다”고 말했다.

어느새 발라드를 대표하는 디바가 됐지만 사실 그의 출발은 댄스 가수였다. 1999년 1집의 ‘선배’로 데뷔해 2000년 2집의 ‘대시’(Dash)가 크게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올해가 15주년이 되는 해다.

“1집을 냈을 때, 무척 잘 나가던 김현정 씨가 공백기여서 후속곡 ‘부담’까지 죽 이어갔는데 그때 이정현 씨가 나오는 통에 밝혔죠. 하하. 이후 2집이 당시 기준으로 40만 장 가까이 팔리면 서 반응을 얻었어요. 엄정화 언니 이후 여자 가수 중 음반이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그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단 생각도, 음악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고교 때 밴드부를 했고 자연스레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다.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한 작곡가의 눈에 띄어 오디션을 봤고 1년 만에 첫 앨범이 나왔다. “노래 잘 부르는 게 재능이란 생각도 못했던 내가 가수로 사는 걸 보면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점에 있던 2000년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3집(2001), 4집(2003)은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3년의 공백기 끝에 2006년 발표한 5집의 ‘사랑 안해’가 빅히트를 하면서 다시 정상급 가수의 대열에 올랐다. 이 곡은 ‘대시’ 이후 6년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그해 노래방 최고 애창곡으로 꼽혔다.

“부모님에게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라는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가식 떼내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안 좋았던 일도 축복인 것 같아요. 아팠고 힘들었지만 견뎌냈기에 축복이죠. 신동엽 오빠가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는 이어 “시간을 보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되면 나중에 다른 시련이 닥쳐도 견디지 못한다. 나에게서 기억이 서서히 지워지는 망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솔한 히트곡 중에 그는 5집의 ‘사랑 안해’를 “지금도 마이크를 잡으면 가장 떨리는 노래”라며 첫 손에 꼽았다.

“방송 활동이 어려웠던 4집 때 이효리의 ‘넌 미녀’이 나왔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너무 예쁘고 멋있었거든요. 이후 ‘사랑 안해’를 냈을 때도 처음 두 달간 지상과 방송 출연이 어려워 각 방송 케이블 방송을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발라드로 컴백했다는 것만 알리고 다른 욕심은 없었기에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 고전했지만 다행히 두 달 만에 반응이 왔죠.”

소리를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안으로 묻히는 창법을 쓰다 보니 ‘다른 보컬 가수들처럼 애드립, 화성을 연구해야 하나’란 고민도 했다. 자꾸 남의 보컬을 분석하게 돼 노래를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 이선희 언니”라며 “언니가 스트레스받지 말고 아예 노래를 듣지 말라고 했다. ‘이제 네가 부르는 사람에서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고 나의 감성에만 집중하고 만족해야지 욕심내지 말라고 조언해줬다.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안도가 됐고 기대로 싶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마음에 안장감을 준 또 한 사람은 정석원이다. 스타일리스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인 만큼 ‘뽕끼 커플’로 소문이 자자하다. 남편 자랑을 해달라고 하자 “내가 기가 세서 잡고 살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며 술술 풀어낸다.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결혼하고 나니 훨씬 좋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단점도 있지만 남편이 장난기가 많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늘 웃게 해주죠. 유산으로 무척 힘들었을 때도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절 우게 해줬어요. 스스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엄청 절약하는데 화려한 사람이 아니어서 좋아요. 하하.”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음 4월 28일 丁酉)

- 36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48년생... 37년생... 38년생... 39년생... 40년생... 41년생...

- 42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54년생... 43년생... 44년생... 45년생... 46년생... 47년생...

신용재, 세월호 희생자 이다운군 자작곡 부른다



수익금 단원고에 기부

포맨의 신용재(25)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 고(학) 이다운군의 생전 못다 한 꿈을 이뤄준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신용재는 가수가 꿈이던 이군이 기타를 치며 노래한 미완의 자작곡 음원을 유족 측으로부터 전해 받아 편곡과 보컬 녹음을 거쳐 완성해주시기로 했다.

유족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군의 꿈이 하늘에서라도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용재가 부른 음원을 이달 말 음반 유통사를 통해 출시할 계획이며 음원 수익금은 단원고에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요 관계자는 “평소 이군이 신용재의 팬이었던 걸로 안다”며 “유족이 소속사를 통해 신용재가 아이의 마지막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이군은 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았고, 방송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이 없는 이 음원은 이군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2분 남짓의 1절만 있는 미완성 곡이다.

노래에는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었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중략)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란 가사가 담겼다.

앞서 이군의 유족은 유명 작곡가인 박근태에게도 이 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컬과 기타 한꺼번에 녹음돼 사운드가 좋지 않아 매번 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박근태는 이군이 창작한 멜로디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곡으로 완성해 유족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엑소 “크리스 이탈 후 더 단단하게 뭉쳤다”

“비 내 뒤에 땅이 굳는다”고 멤버들이 더욱 뚝뚝 뭉쳤어요.”(첸) “이상한 루머가 돌아 오해가 생기고 팬들 사이에 편도 갈려 속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엑소가 되겠습니다.”(레이)

그룹 엑소가 25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번째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로 스트 플래닛’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크리스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멤버들은 지난 15일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팀에서 이탈한 데 대해 “당황스런 마음이 컸다”며 “콘서트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1주일 만에 모든 스태프가 무대 동선, 안무를 다시 짜고 노력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데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 공연은 시아제한석까지 팔리며 총 4만2000석이 순식간에 매진돼 화제가 됐다. 팬들이 티켓 구매를 위해 연습하는 등 예매 전쟁이 치열하자 당초 2회 공연에서 1회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티켓을 손에 넣지 못한 팬 3천여 명이 25일 취소표를 구매하기 위해 공연장에 길게 줄을 늘려서자 소속사는 이날 대형 스크린을 마련해 10곡까지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타오는 “엑소가 인기가 많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11명이 열심히 활동하겠다.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 1등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럼에도 백현과 루한은 “사건 이후 처져 있지 않고 팀워크